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선화¹, 한승희^{2*}

¹청암대학교 간호학과 ²광주대학교 간호학과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Seon-Hwa Park¹, Seung-Hee Han^{2*}

¹Department of Nursing, Choengam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광주, 전남에 소재하는 4년 제 간호대학 2개교에서 간호대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310명의 자료를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é'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에 3.80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81점,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6점,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2.74점이었으며, 대학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r=.418, p<.01$), 간호전문직 자아개념($r=.404, p<.001$), 전공만족도($r=.455, p<.001$)는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beta=.252, p<.001$), 전공만족도($\beta=.309, p<.001$)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7.2%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lf-resili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to present the basic data to assist in healthy adaption of college life. The study included 310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nnam.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ubjects to determine their self-resili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with nursing as a major.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 April, 2016 to 15, April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 20.0. As a result, self-esteem,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veraged 3.80 (out of 4), 2.81 (4), 3.86 (5), and 2.75 (5) respectively. In terms of correlation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self-resilience ($r=.404, p<.001$)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r=.404, p<.001$) and major satisfaction($r=.455, p<.001$). In addition, self-resilience ($\beta=.252, p<.001$) and major satisfaction ($\beta=.309, p<.001$) of variance i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27.2%. Based on these results, improvement programs are necessary to help nursing students get adjusted to college life.

Keywords : Adjustment to college life,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resilience

이 논문은 2016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eung-Hee Han(Gwangju Univ.)

Tel: +82-62-670-2939 email: shhanj@Gwangju.ac.kr

Received May 19, 2016

Revised (1st June 13, 2016, 2nd July 11, 2016, 3rd August 1, 2016)

Accepted August 11, 2016

Published August 31,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역할기대와 책임, 자율 등을 요구받으므로 적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1], 성공적인 대학생활은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불안, 좌절,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되어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2]. 또한 대학생활에 실패할 경우 재기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으므로 대학생활적응은 중요하다[3].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학교생활과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및 취업 후 간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기본요소이다. 또한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적 성취나 대인관계 형성 등과 같은 새로운 경험에 대처해 나가며, 간호학생 때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확립은 향후 진로분야의 전문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생활 동안 형성되어야 한다[4].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교육과정의 특성상 타 학과에 비해 과중한 학과 공부 뿐 아니라 실습으로 인해 단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지식을 이론적 지식에 근거하여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실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어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 느끼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5], 학교생활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최근의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의 높은 취업률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학생들로 인해 전공만족도의 감소로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받는다[7].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실습과정 동안 예기치 못한 과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퇴를 한다고 하였다[8]. 장기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부적응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상자들의 건강한 역할모델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 간호사가 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9].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돕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간호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10]. 간호교육환경에서 유연한 대처능력은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하며[10], 대처능

력 중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이나 상황적 사건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내적 능력으로 불안에 대해 민감성을 낮게 하고 삶에서의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여, 문제해결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11]. 특히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 요인에서 개인의 내·외부 문제 환경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다[11]. 즉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긍정적인 보호 능력으로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자기 확신과 수용이 높고, 개인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며, 인지 능력이 높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12]. 대학생활적응과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보면 자기 효능감, 자아탄력성[13]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개인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나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활적응 동안 미래의 간호를 책임질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며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조화를 이뤄 효율적인 간호업무 수행하는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14].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지식, 가치,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구축되는 것으로, 간호학생들의 전문직을 향한 자기 확신감 및 자가 평가 과정이 가장 주요한 요소라고 하였다[14]. 또한 간호사의 자존감, 자신감 및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본인이 지니고 있는 느낌과 견해로 대학생활 동안 학교교육과정 기간과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통해 발달된다[16]. 따라서 간호학생 시기에 간호교육, 선배간호사 등의 모델을 통해 전문직에 대한 확고한 자아개념이 정립된다면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하여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17].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교내 및 임상에서 전문직자아개념에 대한 교육과정 및 실습을 통해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구축되기 때문에 전문직자아개념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변인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을 통해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의 과정인 전공만족도는[18] 전공에 만족도가 높은 사

람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함을 의미한다[19]. 대학생이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적저조,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 소외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20]. 대학생활적응에서 전공만족도와 같이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생활하는 학생들이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적응을 잘 하는 높은 성취도와 관련이 있고[21],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지고 직업존중감이 높아졌다[21][22]. 이러한 과정들은 졸업 후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까지의 연구를 볼 때 간호대학생은 전공학과의 높은 취업률로 인해 학과선택을 하고 있고, 전공교과목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대학생활적응에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 적응[10],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대학생활적응[23][24], 대학생활적응과 전공만족도[19][25]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 세 변수와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광주의 4년제 간호대학 1개, 전라남도의 4년제 간호대학 1개의 임상실습 수행 전의 2학년 간호대학생 중,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방법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310명이다. 두 대학은 부속병원이 없고 종교계통의 학교가 아닌 일반 사립대학으로, 3학년부터 임상실습을 나가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유사한 교육환경이었다.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0 Program을 사용하였고 효과크기 (f^2) 0.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5%를 기준으로 242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 대상자는 필요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설문을 받기 전 연구대상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사전 협조를 얻어 연구자가 강의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방법,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여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연구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집담 배부 후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으며 작성 시간은 15-20분이 소요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11]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를 유성경과 심혜원[26]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도구의 Cronbach's α 는 도구 개발당시 .76이었으며, 유성경과 심혜원[2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2.3.2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는 Arthur[27]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는 송경애와 노춘희[28]가 번안한 것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 되어있다. 송경애, 노춘희[2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 본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Braskamp et al)[29]를 김계현과 하혜숙[30]이 수정·보완한 18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김계현과 하혜숙[3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2.3.4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31]가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SACQ)로 총 67문항으로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도구의 Cronbach's α 는 도구 개발당시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3이었다.

2.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 20.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은 ANOVA와 t-test로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하게 나타난 반응 변수들을 포함하여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먼저 남학생은 33명(10.6%)이고 여학생은 277명(89.4%)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

세 이하가 67.7%이고, 21세 이상이 32.3%를 보였다. 종교는 없음이 171명(55.2%), 지난 학기 학업 성적은 평점 3.0~3.9 사이가 200명으로(64.5%),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가 135명(43.5%),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가 80명(25.8%)로 다음 순으로 많았다. 교우관계는 좋은 편이다가 168명(54.4%),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는다가 250명(80.6%), 동아리 활동은 활동하지 않는다가 175명(56.5%), 대인관계는 좋은 편이다가 176명(56.8%), 건강상태는 좋다가 165명(53.2%)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3	10.6
	Female	277	89.4
Age	≤ 20	210	67.7
	≥ 21	100	32.3
Religion	Yes	139	44.8
	No	171	55.2
Academic achievement	< 2.0	5	1.6
	2.0 ~ 2.9	77	24.8
	3.0 ~ 3.9	200	64.5
	≥ 4.0	28	9.0
Reason to choose the nursing	High school records	12	3.9
	Aptitude and interest	68	21.9
	High employment guarantee	135	43.5
	Recommendation of parents or teachers	80	25.8
	Others	15	4.8
Relationships with friends	Good	168	54.4
	Moderate	130	41.9
	Bad	11	3.6
Part-time work	No	250	80.6
	Yes	60	19.4
Circle activity	No	175	56.5
	Yes	135	43.5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76	56.8
	Moderate	127	41.0
	Bad	7	2.3
Health status	Healthy	165	53.2
	Moderate	130	41.9
	Unhealthy	15	4.8

3.2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자아탄력성은 평균 2.80±0.36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2.81±0.33점, 전공만족도는 3.86±0.61점, 대학생활적응은 2.74±0.2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elf-resili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N=310)

Variables	Mean±SD	Minimum	Maximum
Self-resilience	2.80±0.36	1.71	4.00
Professional Self-concept	2.81±0.33	1.78	3.81
Major satisfaction	3.86±0.61	1.78	5.00
Adjustment to college life	2.74±0.26	2.05	3.80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차이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교우관계(F=16.45, p<.001), 대인관계(F=19.99, p<.001), 건강상태(F=5.46,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 연령, 종교, 지난학기 학업성적, 간호학

과 선택 동기, 아르바이트 유무, 동아리 활동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은 교우관계, 대인관계, 건강상태는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보통이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았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연령(F=2.49, p<.05), 지난학기 학업성적(F=4.06, p<.01), 간호학과 선택 동기(F=5.78, p<.001), 교우관계(F=19.44, p<.001), 건강상태(F=9.3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 종교, 아르바이트유무,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20세 이하가 21세 이상보다 높았으며, 지난학기 성적이 4.0이상인 2.0~2.9 미만보다 높았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보다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라고 응

Table 3 . Differences of Self-resili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resili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Mean±SD	t/F	Mean±SD	t/F	Mean±SD	t/F	Mean±SD	t/F
Gender	Male	2.84±0.34	.67	2.81±0.40	.07	3.88±0.67	.18	2.70±0.34	-1.01
	Female	2.80±0.37		2.81±0.33		3.86±0.61		2.75±0.26	
Age	≤ 20	2.82±0.36	.46	2.84±0.33	2.49*	3.91±0.58	1.65	2.76±0.25	.96
	≥ 21	2.79±0.39		2.74±0.35		3.78±0.67		2.73±0.30	
Religion	Yes	2.85±0.39	1.90	2.84±0.38	1.55	3.98±0.60	3.02**	2.78±0.28	2.02*
	No	2.77±0.34		2.78±0.31		3.77±0.61		2.72±0.25	
Academic achievement	< 2.0 ^a	2.77±0.40	1.23	2.67±0.22	4.06**	3.67±0.60	3.37*	2.68±0.30	3.61*
	2.0 ~ 2.9 ^b	2.74±0.35		2.71±0.33		3.74±0.62		2.70±0.28	
	3.0 ~ 3.9 ^c	2.83±0.35		2.84±0.33		3.88±0.58		2.75±0.24	
	≥ 4.0 ^d	2.84±0.47		2.93±0.41		4.15±0.73		2.89±0.37	
Reason to choose the nursing	High school records ^a	2.95±0.35	1.81	2.76±0.43	5.78***	3.69±0.76	6.70***	2.75±0.27	.97
	Aptitude and interest ^b	2.88±0.38		2.98±0.32		4.19±0.52		2.79±0.26	
	High employment guarantee ^c	2.76±0.36		2.78±0.33		3.78±0.60		2.73±0.27	
	Recommendation of parents or teachers ^d	2.81±0.34		2.75±0.30		3.80±0.57		2.73±0.26	
	Others ^e	2.81±0.46		2.74±0.41		3.67±0.80		2.81±0.34	
Relationships with friends	Good ^a	2.91±0.37	16.45***	2.91±0.32	19.44***	3.96±0.59	4.92**	2.83±0.27	19.37***
	Moderate ^b	2.68±0.32		2.71±0.32		3.74±0.63		2.65±0.22	
	Bad ^c	2.69±0.32		2.53±0.30		3.89±0.45		2.67±0.29	
Part-time work	No	2.79±0.37	-1.32	2.80±0.34	-.78	3.82±0.62	-2.63*	2.74±0.27	-.80
	Yes	2.86±0.36		2.84±0.33		4.04±0.55		2.77±0.23	
Circle activity	No	2.79±0.36	-.86	2.77±0.34	-2.42	3.84±0.61	-.83	2.72±0.27	-1.75
	Yes	2.83±0.38		2.83±0.33		3.90±0.61		2.78±0.26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a	2.91±0.37	19.99***	2.92±0.32	22.46***	3.97±0.59	7.68**	2.82±0.27	22.04***
	Moderate ^b	2.66±0.31		2.67±0.30		3.71±0.61		2.63±0.23	
	Bad ^c	2.89±0.41		2.63±0.42		4.10±0.49		2.91±0.22	
Health status	Healthy ^a	2.87±0.37	5.46**	2.89±0.32	9.31***	3.95±0.58	3.35*	2.77±0.27	3.83*
	Moderate ^b	2.74±0.35		2.72±0.33		3.78±0.64		2.70±0.26	
	Unhealthy ^c	2.72±0.29		2.73±0.42		3.72±0.65		2.85±0.16	

* 참조 : * p<.05, ** p<.01, *** p<.001

답한 경우가 높았으며, 교우관계,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보다는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보다 높았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종교($F=3.02, p<.01$), 지난학기 학업성적($F=3.37, p<.05$), 간호학과 선택 동기($F=6.70, p<.001$), 교우관계($F=4.92, p<.01$), 대인관계($F=7.68, p<.01$), 건강상태($F=3.35,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 연령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전공만족도는 종교가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았고, 지난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2.0점 이하 학생보다 평점 4.0점 이상학생이 높았고,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 기타보다 전공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우관계, 대인관계,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도는 종교($F=2.02, p<.05$), 지난학기 학업성적($F=3.61, p<.05$), 교우관계($F=19.37, p<.001$), 대인관계($F=22.04, p<.001$), 건강상태($F=3.8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연령, 간호학과 선택 동기, 아르바이트 유무, 동아리 활동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적응도는 종교가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았고, 학업성적이 4.0 이상인 경우가 2.0~2.9 미만인 학생보다 높았고, 교우관계, 대인관계,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았다[Table 3].

3.4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r=.418, p<.01$), 간호전문직 자아개념($r=.404, p<.001$), 전공만족도($r=.455, p<.001$)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r=.665, p<.001$)간에는 높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Bivariate correlation between Self-resili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310)

Variables	Ego-resili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Ego-resilience	1			
Professional Self-Concept	.550**	1		
Major satisfaction	.419**	.665**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418**	.404**	.455**	1

** $p<.01$

3.5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적응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모형 설명력(R^2)은 .26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7.094, p<.001$). 대학생활적응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beta =.309, p<.001$)와 자아탄력성($\beta=.252, p<.001$)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N=310)

Variables	B	Std. Error	Beta	t	Sig.
Constant	1.581	.121		13.10	.000
Ego-resilience	.184	.043	.252	4.28	.000
Professional Self-Concept	.045	.057	.056	.78	.433
Major satisfaction	.135	.029	.309	4.65	.000

$R^2=.268 F=37.094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간호학과와 특성상 타 전공에 비해 다양한 전공지식과 임상실습을 습득해야 하는 부담감과 더

붙어 임상실습에서 업무 수행 시 정확하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간호환경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대학생활적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요인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의 개선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탄력성은 4점 척도에서 2.80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32] 2.80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교우관계, 대인관계, 건강상태가 좋은 편일 때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과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므로[33] 교우관계, 대인관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그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높은 연령보다 낮은 연령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직 임상실습경험이 없고 교내실습에서 항상 지도교수와 동료학생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과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파악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척도에서 2.81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34]에서 2.85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분석에서 연령, 성적, 간호학과 선택 동기, 건강상태, 대인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남희와 김경원[34], 지은미와 이진희[35]의 연구에도 전문직 자아개념이 성별, 학년,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학교성적,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23]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1년간의 교육을 통해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에서처럼[23] 아직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임상실습 전과 후의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자아개

념과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86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3.84점으로[19] 유사하였고, 3.43점으로[25] 본 연구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차이가 난 이유는 연구대상자가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저학년의 대상자로 조사해서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들을 미리 전공만족도를 높여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과외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대학생활적응은 5점 척도에서 2.74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5] 3.1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특성에서 교우관계, 대인관계, 건강상태, 성적, 종교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성아와 이경숙의 연구에서도[24] 성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간호학과 선택 동기에서는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효진과 [36] 홍혜숙, 김현영의 연구[37]에서는 자신이 원해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다른 전공에 비해 취업률 높기 때문에 취업을 이유로 선택하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10],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23],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25]의 연구에서도 정적 상관관계의 연구결과가 나와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박윤경의 선행연구에서[10]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가 [25] 나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안성아와 이경숙[24]의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마도 연구대상자가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았고 단계적으로 전공교과목과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비교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조사하고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연구의 대상은 2개 대학 4년제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분석,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은 교우관계($F=16.45, p<.001$), 대인관계($F=19.99, p<.001$), 건강상태($F=5.46,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연령($F=2.49, p<.05$), 지난학기 학업성적($F=4.06, p<.01$), 간호학과 선택동기($F=5.78, p<.001$), 교우관계($F=19.44, p<.001$), 건강상태($F=9.3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생활적응은 종교($F=2.02, p<.05$), 지난학기 학업성적($F=3.61, p<.05$), 교우관계($F=19.37, p<.001$), 대인관계($F=22.04, p<.001$), 건강상태($F=3.8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척도와 자아탄력성($r=.418, p<.01$), 간호전문직 자아개념($r=.404, p<.001$), 전공만족도($r=.455, p<.001$)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척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beta=.309, p<.001$)와 자아탄력성($\beta=.252, p<.001$)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를 높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J. Y. Ahn, H. K. Lim, "College Adjustment of Femal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vol. 14, no. 1, pp. 233-239, 2005.
- [2] K. H. Kim, E. S. Kim,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steem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3, pp. 1519-1533, 2012.
- [3] H. Y. Lee, "Parenting Behavior and Adjustment to College: Moderating Effect of Cultural Dispositions",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14, pp. 337-355, 2008.
- [4] T. J. Jang,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s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imyung, Seoul*, 2014.
- [5]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05-213, 2006.
- [6]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0.40.1.14>
- [7] Y.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312-332, 2012.
- [8] L. Last, P. Fulbrook, "Why Do Student Nurses Leave? Suggestions from ad Delphi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 23, no. 6, pp. 449-458, 2003.
DOI: [http://dx.doi.org/10.1016/S0260-6917\(03\)00063-7](http://dx.doi.org/10.1016/S0260-6917(03)00063-7)
- [9]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12-322, 2012.
- [10]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 [11] J.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1996.
- [12] J. H. Park, J. M. Park, "The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Exam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1, no. 6, pp. 125-134, 2010.
- [13] G. S. Jeong,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ego-resiliency and the stress on clinical practices",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 10, pp. 165-183, 2013.
- [14] K. S. Kim, "A Study on Professional Self 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3, no. 4, pp. 1991-2001, 2011.
- [15] D. Arthur,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vol. 15, no. 5, pp. 328-325, 1995.
DOI: [http://dx.doi.org/10.1016/S0260-6917\(95\)80004-2](http://dx.doi.org/10.1016/S0260-6917(95)80004-2)
- [16] K. Y. Song, C. H. No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6, no. 1, pp. 94-106, 1996.
- [17] I. S. Park, R.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4, pp.105-117, 2013.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3.7.4.105>
- [18] I. O. Moon., G. 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1, pp. 83-91, 2010.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0.16.1.083>
- [19] Y. S. Kang, S. K. Hwang,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7, pp. 3301-330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7.3301>
- [20] M. Y. Chang,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their Majors, Attributional Style, and Career Decision Level*, Master's Thesis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5.
- [21] J. E. Ko, M. H. Kim, E. J. Kim, H. J. Kim, J. E. Eom, H. A. Lee, N. R. Jang, D. E. Jang,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the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Ewha Womans Academic of Nursing*, 45, 29-44, 2011.
- [22] B. H. Son, Y. M. Kim, I. G. Jun, "A Study on Nursing Students' Job-esteem, Work Values, and Satisfaction of Their Maj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0, no. 2, pp. 240-249, 2011.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1.20.3.240>
- [23] Y. H. Kim, "Changes in Nursing Values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s after Practical Education Based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Nursing*, vol. 14, no. 4, pp. 420-428, 2007.
- [24] S. A. Ahn, K. S. Lee, "Effects of Hardiness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4, pp. 2165-2178, 2013.
- [25] J. H. Oh,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0, pp. 873-884,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0.873>
- [26] S. Y. Yoo,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no. 4, pp.189-206, 2002.
- [27] D. Arthur, *The Development of o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Master of Educational Thesis, University of New Castle, Australia. 1990
- [28] K. Y. Sohng, C. H. No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6, no. 1, pp. 90-106, 1996.
- [29] L. A. Braskamp, S. L. Wise, D. D. Hengstler,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1, no.4, pp. 494-498, 1979.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71.4.494>
- [30]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 Couns*, vol. 1. no. 1, pp. 7-20, 2002
- [31] R. W. Baker, B. Siryk,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 Los Angeles, CA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9.
- [32] E. J. Shin,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 5636-5645,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33] J. H. Block and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pp.39-101, Hillsdale, NJ:Erlbaum, 1980.
- [34] N. H. Kim, K. W. Kim, "Self-Efficac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5. no. 4, pp. 41-51, 2011.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1.5.4.041>
- [35] E. M. Ji, J. H. Lee,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2, pp.1125-1140, 2014.
- [36] H. J. Won,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9, no. 1, pp. 123-131, 2015.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5.9.1.123>
- [37] H. S. Hong, H. Y. Kim, "Effect of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2, pp. 2321-2345, 2016.

박 선 화(Seon-Hwa Park)

[정회원]



- 2009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1997년 1월 ~ 2014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근무
- 2014년 9월 ~ 현재 : 정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시뮬레이션

한 승 희(Seung-Hee Han)

[정회원]



- 1997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2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